

‘일자리 만들어 지역 공헌’ 광주 사회적 기업 눈길

중증장애인 48명 고용, 제빵 사업 통해 연 매출액 7억 달성

경력단절 주부 모여 수공예품 판매, 지역 봉사로 이익 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가중되며 온정이 식는 각박한 세태 속에서도 소외 이웃을 고용하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은 172곳(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일부 포함)이다.

공인 받은 업체는 115곳, 나머지 57곳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업체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과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영업 활동을 하는 회사다.

지역에선 사회적 기업의 수나 규모, 활동 폭 등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 모델을 제시하며 본 궤도에 오른 업체도 있다.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떡볶이 지재단’은 뇌병변 중증, 발달·정각 장애를 안고 사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을 운영하며, 고용 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지관에서 당초 정서 안정 등을 위해 보호 장애인을 대상으로 펼친 제과·제빵 교육을 바탕으로, 복지관과 사회적 기업을 접목했다. 사회적 기업 승인을 받은 2006년 당시 국내에선 전례가 없었으나, 외국의 우수 사례를 연구했다.

제과·제빵 기술이 탁월한 중증 장애인 10명과 함께 빵을 만들기 시작했고, 고정 판매처가 없던 첫 달에는 수익이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비장애인 직원을 채용, 지역 유통업체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판로를 넓혀갔다.

‘조금 느리지만 유기농으로 만

든 품질 좋은 빵’을 표방하며, 대학병원과 지역 프랜차이즈 마트 등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최근 연 매출은 7억 원까지 늘었다.

그 사이 직원은 중증장애인 48명과 비장애인 14명으로 늘었고, 사업 영역은 세차, 화훼업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장애인에게 안정적 자립 기반을 제공하면서 비장애인의 추가 고용도 창출한 ‘선순환’을 만들었다. 수익 구조가 안정, 지속 가능성도 높아졌다.

안병규 떡볶이재단 대표는 “경제적 가치로만 따지면, 중증장애인 고용이 수익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자활을 돕는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 이익이 더 크다”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통해 부양 책임은 가족도 훨씬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 제품 다각화, 상표

등록 등을 통해 수익을 확대해 중증 장애인 일자리 200개를 창출하겠다. 고용의 질도 높여 중증 장애인의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광산구 월곡동의 마을 기업 ‘예쁜손공예협동조합’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모여 손수 만든 공예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

이 기업은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 취미로 모여 바느질 하던 일로부터 시작했다. 이어 뜻이 맞는 주부들이 개인 공방으로 창업을 했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에 맞춰 지난 2014년 협동조합 기업으로 거듭났다.

조합원 8명 모두 출산·육아 등 이유로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 협동조합 기업 전환을 통해 재무·회계·관측 등에 대한 전문 교육 지원제도의 수혜를 입었다.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꾸렸고, ‘부영이’ 캐릭터를 활용한 공예품이 곳곳의 플라마켓(Flea Market·벼룩장터)에서 각광을 받았다. 첫 해였던 2014년 1000만 원에 그쳤던 연 매출은 지난해 3



억 원 규모로 경증 뛰었다.

‘마을과 함께하는 핸드메이드 경제 공동체’를 표방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과 주부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안정적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무료로 공예 교육을 하며, 마을기업 창업도 돕고 있다.

또 마을 내 경로당 5곳을 돌며 노인들의 의류를 무료 수선하는가 하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에게 수제 공예 또는 의상 제작 관련 직무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버리는 청바지를 활용한 상품을 제작, 환경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안정민 예쁜손공예협동조합 대표는 “대형마트 내 상생 점포 입점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를 만들 것이다”며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에도 꾸준히 이바지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서선옥기자

“돌봄정보, ‘광주아이키움’에서 확인하세요”

돌봄서비스 예약 등 서비스 다양



광주시가 임신·출산·양육에서 일·생활균형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

주만들기’ 정책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광주아이키움(www.gwangjuaiki.com.kr)’을

최근 개통해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아이키움은 출산과 양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책 안내, 수요자 맞춤형 검색서비스, 돌봄서비스 예약 기능, 돌봄지도 제공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해 육아·돌봄 공백증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교와 휴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시설, 돌봄서비스, 돌봄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광주시는 역점시책인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와 관련해 3차례 정책 시리즈를 발표하고 긴급아이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시설 기반 구축과 임원아동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등 틈새돌봄 제공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출생육아수당을 도입하는 등 일·생활 균형에 중점을 둔 아이키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출생육아수당(출생아 100만 원, 24개월 이하 월 20만 원) 지급, 신혼부부 대상 난임검사비 지원(가정당 30만 원),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 대상 광주형 산후조리서비스 지도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신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명절위문금 지원

신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신안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65명에게 명절 위문금을 지원했다.

명절지원금은 신안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신안군노인전문인거주시설 외 5개소, 신안보육원, 압해드림지역아동센터 외 2개소, 신안지역자활센터 등 총36개소 356명에게 1004석지역상품권 10만원씩 지원

했다. 도서 지역 특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종사자들의 고충을 위로하고 처우 개선차원으로 특히, 작년 추석때보다 5만원 인상된 10만원을 방문요양보호사까지 확대 지원한다.

신안군은 위문금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안=이덕주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